

나주시 지역업체 수의계약 낙찰률 상향

2천만원 이하 90%→93%

공사·물품·용역 동일 적용

계약보증금도 낮춰 지역경제 활력

나주시가 수의계약 낙찰률을 높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나주시는 2000만원 이하의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낙찰률을 기존 90%에서 93%로 3% 상향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기에 공사·용역·물품별 상이했던 낙찰률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공사·용역·물품 낙찰률은 98%, 500만~1000만원은 96%, 1000만~1500만원은 94%, 1500만~2000만원은 93%의 낙찰률을 각각 보장받게 된다.

예를 들면 예정가격 2000만원짜리 시설 공사를 수의방식으로 계약할 경우 기존 나주시가 업체에 지급했던 계약금액은 1780만원이었지만 낙찰률 상향으로 3% (80만원) 많은 1860만원을 받게 된다.

나주시는 2000만원 이하 전체 수의계약 중 95% 이상을 지역 업체가 선정된다는 점에서 낙찰률 상

향으로 연간 16억원 규모의 예산이 시중에 풀리면 서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1000만원 이상 관급공사와 물품, 용역 계약 보증금도 현행 7.5%에서 5%로 하향 조정하는 계약보증금 특례조치 시행으로 지역 업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낙찰률 상향은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한 결과 나주시 평균 낙찰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파악돼 이뤄진 조치"라며 "낙찰률 상향과 계약보증금 하향을 통해 관급사업의 품질 확보와 참여도를 높여 지역 경제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on@



오는 5월부터 장흥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에서 1박 2일 '별난 가족 별난 캠핑' 천문캠프를 진행한다.

장흥 심천공원 캠핑장서 5월부터 천문캠프

총 8회 회당 8가족 선착순 신청

5월부터 장흥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천문캠프가 운영된다.

장흥 정남진천문과학관은 27일부터 상반기 '별난 가족 별난 캠핑' 천문캠프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행사에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을 대상으로 모두 8차례 진행된다. 회당 8가족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행사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을 대상으로 모두 8차례 진행된다. 회당 8가족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천문캠프에서는 천체망

원경으로 직접 별을 관측해보고 태양 관측 안경을 만들어본다.

블록렌즈와 골판지로 망원경을 만들고,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로 별자리 앱을 사용해보는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별난 가족 별난 캠핑' 천문캠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한 '2023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남진천문과학관 홈페이지(star.jangheu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군, 영모당·추원당 국가 보물 지정 기념식

"다산초당 연계 새 관광지 개발"

강진군이 25일 도암면 계리리에서 '강진 영모당·추원당' 국가 문화재 보물 지정에 따른 기념식을 열었다.

영모당과 추원당은 17세기 건립된 문중 제각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로 인정받아 국가 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해남윤씨 문중이 지은 제사용 건물인 영모당은 전면 화반에 있는 물고기 장식, 행랑채의 부엌 천장에 있는 솥을지붕 등의 세부 건축 비법은 18세기 지방 건축 양식을 이해하는 소중한 사료로 여겨

진다. 추원당 역시 해남윤씨의 제각으로 당시 해남 고산 윤선도가 중심이 돼 1649년 건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마루가 넓게 꾸며져 있으며 건축 구조에 사용된 치목과 나무의 짜임 방식은 웅장함과 동시에 간결한 자연미를 갖췄다. 숙종 28(1702)년에 세진 족보 목판 93점이 보관돼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다산의 외가이자 해남 윤씨의 상징인 영모당과 추원당을 다산초당과 연계한 강진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 한천~오음 지방도 안전 뒷전 확장공사 '위험천만'

건설 자재·쓰레기 등 방치 눈살

주민들 "수차레 민원 시정 안돼"

전남도가 발주한 화순군 한천면 한천~오음 간 지방도 확장·포장공사 구간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화순군 한천면 오음리 일대에서 1.3km에 걸친 지방도를 9.5m 폭 왕복 2차로 도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시작한 공사는 오는 12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달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인다.

이날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현장에서는 교량 공사장과 접해 심하게 굽은 내리막길에서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며 후미등을 밝히는 차들이 잇따라 발견할 수 있었다.

마을에서 뻗어 나온 교차로 구간은 차단벽 탓에 갑자기 좁아졌고, 뒤따르는 차들의 추돌사고 위험이 우려됐다.

원통 안전 표시물은 초입 부분에만 세워졌을 뿐이었다. 콘크리트 부산물 등 공사 폐기물은 길가에 널브러져 있었고, 높이 5m가 넘는 흙더미 붕괴를 막을 장치는 전혀 없었다. 전방에 도로 폭이 좁아짐을 알리는 안내판이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야광 안내판과 경고등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날 20분가량 머문 마을 어귀 교차로 구간에서는 20대 넘는 차량이 길을 오르내렸다. 인근의 크고 작은 3개 마을과 한천자연휴양림·야영장을 이



25일 오전 화순군 한천면 오음리 지방도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비로 젖은 경사 길을 내려오는 차량이 차단벽을 피해 속도를 급하게 줄이며 이슬이슬하게 운전하고 있다.

용하기 위한 승용차, 마을버스가 오갔다.

주민들은 공사장 주변이 굉음과 먼지로 뒤덮이고 각종 공사 쓰레기가 곳곳에 방치돼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음리 3구의 한 주민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전남도와 화순군 등 행정당국에 민원을 넣었지만 제대로 시정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며 "공사 초입과 중간 지점에는 덤프트럭의 날림먼지를 씻어내기 위한 세륜장이 있지만 이용하는 흥내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비산먼지는 현재 세륜장 대신 살수차로 처리하고 있다"며 "고소작업 등 공사 현장이 위험할 요소는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에 걸쳐 현장을 찾아 시정 요구를 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 한천~오음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는 총사업비 68억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도금액은 40억원 규모다. /글·사진 화순=조성수 기자 css@

담양군, 대나무·딸기 활용 '유기농 주류' 개발

담양군이 딸기 와인과 대나무 막걸리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주류 개발에 나섰다.

담양군은 지난해 12월부터 대나무와 딸기를 소재로 생산된 유기농 주류가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나무 막걸리와 딸기 와인, 딸기 스킨링 와인, 과하주 등 4종류의 술이 상품화를 준비하고 있다. 술 기념품과 더불어 지역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

용한 술과 어울리는 음식 메뉴도 개발하고 있다. 지역 청장년 창업 연계 사업 모델도 발굴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군은 최근 주류 개발 사업 성과 평가를 위해 해동문화예술촌에서 1차 시음평가회를 진행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대나무 막걸리와 과하주.

진다. 추원당 역시 해남윤씨의 제각으로 당시 해남 고산 윤선도가 중심이 돼 1649년 건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마루가 넓게 꾸며져 있으며 건축 구조에 사용된 치목과 나무의 짜임 방식은 웅장함과 동시에 간결한 자연미를 갖췄다. 숙종 28(1702)년에 세진 족보 목판 93점이 보관돼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다산의 외가이자 해남 윤씨의 상징인 영모당과 추원당을 다산초당과 연계한 강진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절판 판매 중

이방인

이기원 4회

문이당

문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